



원주민의상을 입은 원주민 아가씨들과 필자(中央)

臺灣의 풍물도 즐기며

中華民國 國立陽明醫學院 寄生蟲學科 研修記

李 在 興

대만공항(中正國際機場)에 내렸을 때는 4월 8일 한낮이었는데 필립핀 “마닐라”에서 35~40°의 기온에서 시달리고 왔던 참이라 25°의 날씨인데도 선선한 감을 느꼈다. 무덥고 시끄럽고 혼잡한 곳에서

오니 집에온 느낌이였다. 공항에서 대북시까지지는 약 한시간정도 오는데 인종도 우리와 비슷하거니와 한문으로 쓰여진 간판들이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하였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나를 초청해 준 교수(范

秉眞)께 연락하여 다음날 부터는 학교 기숙사에 들고 소진탁학장님은 서울로 떠나셨다. 그 기숙사는 (學人招待所) 그 학교에 온 외국인, 지방에서 온 교수, 연구원들이 투숙하는 곳이다.

독신자가 지내기는 편리한 시설이어서 나로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양명의학원(의과대학)이 설립된지는 7년밖에 안되나 부속병원(榮民總醫院)은 50년이 넘으며 대만에서는 큰 병원이라고 설명해 준다.

교내에 직원아파트, 독신아파트, 유치원까지 있어 직원들의 생활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교문안에 들어서면 직원은 물론 그 기관에 찾아온 사람들도 일체 금연(禁煙)으로 되어있어 애연가들은 하루종일 신경을 많이 쓰게된다.

얼마전 연구차 왔던 미국인 교수는 담배때문에 쫓겨갔다는 말을 나한테 은근히 전해준다. 기생충학과 주임교수로부터 교실원 소개를 받았다.

교수 1명, 부교수 1명, 조교 3명, 기사 6명 모두 11명의 교실원들은 어느정도 분리된 전공 연구실을 가지고 있었으며 열대지방이라 그렇겠지만 위생곤충(주로 “모기”) 실험은 일년내내 한다고 한다.

내가 할려고 했던 기생충성충표본제작과 총란슬라이드 영구표본제작법 곤충사육법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이미 우리가 먼저하고 있는것도 있었다.

농촌에 다니며 재료수집과 기생충 예방을 위한 위생시설등을 견학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관광도 많이 할 수 있어 처음으로 그곳에 여행한 나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그곳의 의학교육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그 학교에 입학되는 학생은 전원 국비장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7년간의 교육을 받으면 “의사”국가고시를 거쳐 의사가 된다고 한다.

모든 교육은 Video 또는 슬라이드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었으며 기생충학은 총란 익히기를 중점으로 하는데 총란 슬라이드를 2명에 1매씩 50여종을 나누어 주어 1학기 익히도록 하고 있었다. 학기가 끝나면 반납하는데 만일 분실 또는 파괴된 것이 있으면 1매에 NT \$ 40-260(780~4,800원)까지 보상시키고 있었다. 해부학실습도 시체 1구에 15~20여명이 1조가 되어 실습을 한다고 한다.(우리 경우 1:6)

(※ NT=뉴타이페이불)

시내는 항상 바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고급 승용차는 많아도 신사복차림의 사람은 보기 어려웠다. 재미때처럼 밀리는 자동차, 오토바이들, 공해문제도 심각하게 보였으나 옆이 트인 치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여자의 모습은 보기싫지 않았다.

우리의 차 포니도 그 대열속에 끼어 달리는 것을 볼 때는 흐뭇한 감도 느꼈다.

아침 일찍 산이나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새장을 가져와 나무에 걸어 놓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즐기며 오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이도 있고 디스코 음악의 카셋트를 돌려놓고 디스코춤 비슷한 체조를 시작하면 한사람 두사람 모여 수십여명의 남녀노소가 아침체조를 한다.

이러한 광경은 공원내에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해만 지면 포장마차 간이음식점이 골목마다 늘비하게 시장이 생긴다. 신사, 숙녀, 학생 누구든지 길가에서 가리지않고 취향대로 사 먹는다. 어쨌든 먹는데는 신경을 많이 쓰는것 같다.

주말이면 약속이나 한듯이 의례히 한국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역시 한국 식당이다. 모두들 김치가 생각나서 왔다는 것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서로가 반가워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고국이 그림다는 말은 이구동성이었다.

우리 교민들이 운영하는 선물센터, 식당, 술집등 몇 곳이 있어 한국사람들의 유일한 연락처?로 이용하고 있고 처음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숙소안내, 관광안내까지 해주고 있어 여행자에게는 고마운 일들을 많이하고 있다.

버스나 기차를 타면 간첩검거일인유책(間諜檢舉一人有責) 진물이나 공공기관에는 반공방첩(反共訪諜) 중화민국만세 등의 표어 간판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반공회관에 들러 중공의 현실이라는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었고 아침부터 온종일 있다가 경비원의 나가라는 늑촉으로 쫓겨나온 국립박물관(國立故宮博物院)은 지금도 머리속에 가물거린다. 그렇게 좋고 많은 보물들을 6개월마다 바꾸어 진열해도 10년을 지나야? 모두, 진열할 수 있다니 내가 구경한 물건은 언제가야 또 볼런지. 감감한 이야기이다.

입체적으로 꾸며진 민속관 또한 장관이다. 옛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풍속 의상 관례 등을 실물과 같이 사람만한 인형을 만들어 재현해 놓았고 어느것은 움직이게 해서 꼭 실물같은 것도 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의 것과 비슷한 것도 있었다. 그곳에서도 관광지로 유명한 천상(天祥) 대로각(大魯閣) 화련(花連) 일월담(日月潭) 아리산(阿里山)등 모두 특색있고 감탄할만한 곳도 있었다. 어디서든지 교회는 보기 힘들고 자주 보이는 “절”은 그 외형이 아주 아름답게 해 놓았다.

진하게 칠한 여러가지 원색 색상이며 지붕위에 장식한 용(龍)의 모습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절을 건축하는데는 내부보다 외부를 더 화려하게 한다고 한다.

농촌에 출장을 갔다가 마침 상가(喪家) 집을 구경하게 되었다. 마당에 시체를 내놓고 가설해 놓은 빈소 앞에는 우리와 비슷한 상복을 입은 유족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무당같이 옷을 입은 2명이 징, 북을 울리며 무어라고 지껄리는지 마치 굿을 하는것 같았다. 가난한 사람도 3일에서 9일까지 있다가 장례식을 하고 또 모든 경비는 아끼지 않고 쓴다고 한다. 마지막 길에는 풍족하게 해야 극락(極樂)으로 간다는 그들의 이야기다. 1년에 2-3모작을 한다는 논에는 벼가 논바닥이 안보이게 자랐고 호박덩쿨은 처마밑을 거의 올라갔는데 4월갈지 않는 기온이기에 시체보존이 은근히 궁금하여 물었더니 혼(魂)이 중요하지 육신에 대한 신경은 안쓴다는 답변이었다.

공동묘지도 보면 울긋불긋 화려하게 여러가지 장식을 해 놓았다.

상가집에서 얻어 먹은 한잔의 술이 4km나 떨어진 정거장(車站)까지 오는데는 힘이된것 같았다.

산, 상봉에 커다란 호수가 있는 日月潭에 세워진 12층의 탑 모양으로 세워진 관망대(母慈恩樓) 장충통이 지어놓은 어머니에 대한 은혜탑이며 온국민의 어머니에 대한 은혜탑이라고 한다.

해발 2,700m의 아리산(阿里山)은 가의(嘉義)라는 곳에서 관광기관차(中興特快鐵路)로 4시간 이상을 울창한 고목과 대나무 숲을 뚫고 앞으로 뒤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데 마치 구름속으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탄것 같았다. 낙엽송같이 큰 대나무가 산 계곡을 메우고 쪽쪽 솟아나는 죽순(竹筍)은 식용으로 수출까지 한다고 한다.

상봉종점에 내리니 여름옷 차림의 나는 겨울을 만난듯 떨기 시작, 기온차이가 너무나 심했다.

어느 관광품상에서 흘러나오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는 나를 놀라게 했고 추위를 잊게 했다. 나를 위해 들려주는 것은 아니겠지 하며, 알고보니 아리산(阿里山)이기 때문에 아리랑 한국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한다. 이름모를 산나물로 맛없이 만들어 놓은 반찬에 향기 청하며 3000년 됐다는 고목(古木)을 바라보며 저녁은 먹었으나 NT 2,500(₩약 50,000)짜리 침대에 누우니 편안하기 보다는 가시침대 같은 느낌을 피부로 느끼며 날새기만 기다렸다.

도와주고 친절히 대해준 그곳 기생충학 교실 여러 직원과 재회를 약속하며 헤어지지도 두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곳의 호박덩쿨은 그때 본것 보다 조금 더 자랐구나.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열대 의학연구소>